비천의 법음 들려오는 오대산으로

2018 오대산 월정사 전통산사문화재
특별전 '천상의 소리 원류를 찾아서' 展 등
12월까지 공연 · 전시 · 문화재탐방과 체험 다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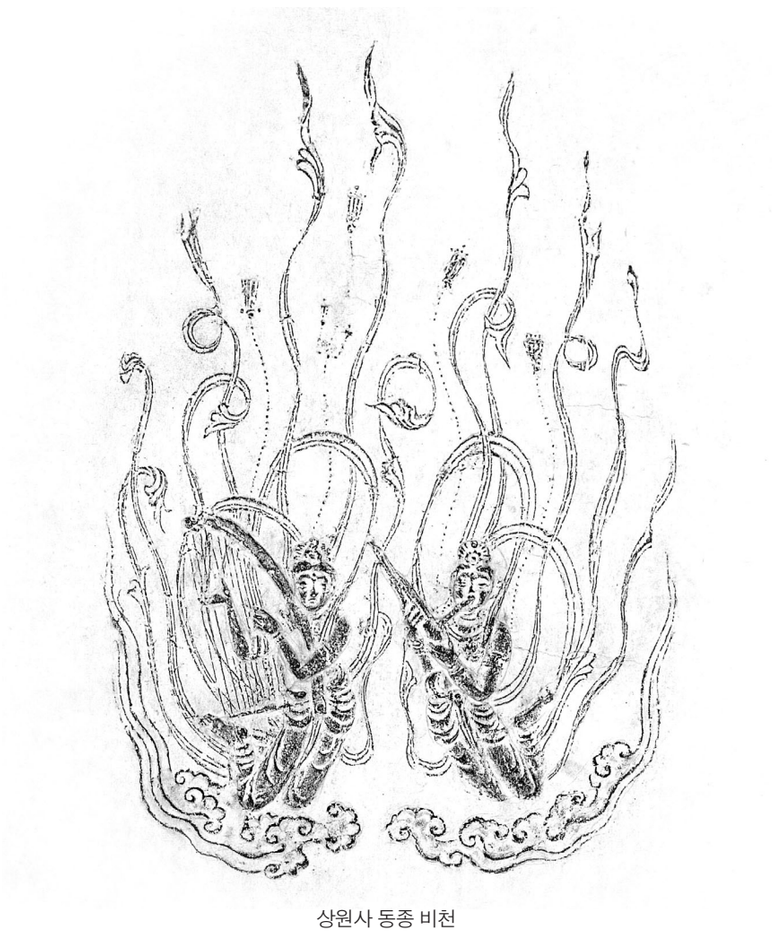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오대산의 자연과 문화재를 통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특별한 자리가 열린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8월 25일부터 12월까지 공연과 전시, 문화재 탐방과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는 '2018 오대산 월정사 전통산사문화재'를 개최한다.

'하늘로부터 돌아온 천년의 소리' 개막공연으로 시작된 문화재는 12월까지 월정사 전나무숲 박물관에서 박물관 탐방객을 대상으로 상원사 동종의 비천상 문양 그리기와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법고, 목어, 운판, 범종소리 듣기체험을 상시 진행한다.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월정사 전나무숲 박물관에서는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 하는 오대산 산사문화재 탐방 '문화유산을 찾아가며 마음을 밝히는 걷기명상'을 진행하고, 8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는 범종과 부도에 등장하는 주악비천상과 악기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천상의 소리 원류를 찾아서'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일본 우사진구 동종의 요고, 문역 봉암사 지증국사 부도의 당비파와 대금, 상원사 동종의 공후와 생황 등에 나타나 있는 악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상원사, 선림원지 동종과 일본 죠렌지, 덴린지, 슛세키지 동종의 비천상 탁본을 전시한다.

특별전 '천상의 소리, 원류를 찾아서'는 범종과 부도에 등장하는 주악비천상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비천은 부처님의 법음이 펼쳐지는 자리마다 나타나 허공을 날며 부처님을 공양하고 숭배하는 천인(天人)이다. 비천상은 공양을 올리는 모습의 공양비천상과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의 주악비천상이 있다. 주악비천상은 천의를 날리며 악기를 연주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천인들로 오랜 시간을 지나 무한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감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주악비천상이 연주하는 비파 · 생황 · 공후 · 대금 등의 악기들은 중앙아시아를 지나 우리나라로 이어지며 다양한 국악기들로 발전했다.


상원사 동종 비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이 전시는 단순히 비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주악비천들이 연주하는 천상의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전통 악기의 아름다운 선율과 오대산의 자연, 문화재 탐방을 통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했다.

월정사는 산사문화재와 함께 제15회 오대산 전국학생 미술공모전과 백일장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미술은 생활화, 수채화, 한국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부문이며, 백일장은 시와 산문 부문이다. 참가 대상은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등학력자이다. 마감은 9월 21일(금)까지이며 참가 신청은 월정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원고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033)646-1318

제11회 보덕사 호수음악제

9월 2일 오후 2시 보덕사, 하이런 · 정수라 등 출연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그리고 당진 시민들이 문화와 마음을 나누는 축제가 열린다. 당진 보덕사(주지 정안)는 9월 2일 오후 2시 보덕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2018 당진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제11회 보덕사 호수음악제를 개최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보덕사 호수음악제는 충남 당진 시민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음악제는 당진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전통문화를 알아가고 공유할 수 있는 전통춤과 다문화가족들로 구성된 ▲1부-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과 성금 감사패 전달 등 ▲2부-본행사를 거쳐 ▲3부-호수음악제로 이어진다.

스리랑카 마하위하라사원의 담마프렌즈의 전통공연을 시작으로 우리의 소리 진도북, 판소리 명창이 이어지고, 청년불자 소프라노 최유정, 보덕사 · 서원사 연합합창단, 초대가수 하이런, 주병선, 정수라가 출연해 다양한 전통문화와 대중문화가 어우러지는 소통과 공감의 흥겨운 무대를 펼친다. 국가와 종교, 인종, 승속의 장벽을 넘어 서로가 화합하는 음악제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41)353-9306

박재완 기자


지난해 열린 보덕사 호수음악제.

한국불교미술 우리 손에…

동국불교미술인회 창립 25주년 기념
제13회 동국불교미술인전
서울 인사아트프라자 9월 5~10일

불교미술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전시가 열린다.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박갑용)는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서울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제13회 동국불교미술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회원 40명 중 32명이 참가해 회화, 조각, 공예 등 불교미술의 모든 분야에 걸쳐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10여 명의 신입회원들이 새롭게 참여하여 관음보살, 지장보살, 단청, 신중탱화, 백제금동대향로 등 불교미술의 전통 소재들을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임으로써, 세대간의 폭넓은 교류와 침체된 불교미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갑용 회장은 "제방의 고승대덕과 명현들께서 앞으로도 더욱 깊은 애정으로 본회를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며 "본회의 발전과 한국불교미술의 발전이 둘이 아니고, 본회의 역량이 한국불교미술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깊이 새기며 정진해 나가겠다"고 이번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1993년 회화, 단청, 조각,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창립된 동국불교미술인회는 불교미술 전승과 국내외 문화재보전활동을 위해 1994년 창립기념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정기회원전을 개최하고 두 차례의 학술세미나와 다양한 자료집 발간 등 한국불교미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박재완 기자


박용갑 作, 관세음보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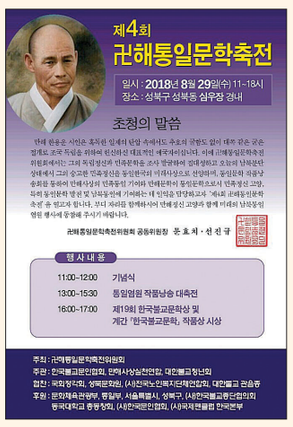
제4회 만해통일문학축전

8월 29일 11시 심우장서
통일염원 작품낭송 등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을 기리는 제4회 만해통일문학축전이 8월 29일(수)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심우장 경내에서 열린다.

11시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후 1시부터는 '통일염원 작품낭송 대축전'이 열리고, 오후 4시부터는 제19회 한국불교문학상 및 계간 〈한국불교문학〉 작품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통일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고 남북문학 교류와 함께 미래 통일 한국의 문학지평 구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통일염원 작품낭송 대축전'에서는 2016년 제2회 통일문학축전을 기하여 공모한 작품 중 108편을 선정하여 발간한 작품집에서 30편을 골라 문인들이 낭송한다.

만해통일문학축전위원회는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과 민족문학을 조사 발굴하여 집대성하고 오늘의 남북분단 상태에서 그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통일한국의 미래사상으로 선양하며, 통일문학작품 낭송회를 통하여 만해사상의 민족통일 기여와 만해문학이 통일문학으로서 민족정신 고양, 특히 통일문학 발전 및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제4회 만해통일문학축전을 열고자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제19회 한국불교문학상 시상식에서는 동시영 시인이 대상, 정수미 시인과 박춘근 수필가가 시와 수필 부문 계간 한국불교문학 작품상, 김종연과 이성운이 신인상을 받는다.

박재완 기자



